

LGU+, LG전자와 서비스 로봇시장 공략... 디지털화 속도

더본코리아 매장서 시범 운영
로봇 플랫폼 개발 등 전방위 협력
'LG 클로이 서버봇' 연내 상품화

LG유플러스가 LG전자와 손을 잡고 서빙-배송-안내 서비스 로봇 시장 공략을 강화한다. 양사는 홍콩반점·인생설령탕·롤링파스타 등 더본코리아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8월부터 서비스 로봇에 대해 시범 운영에 들어갔다.

LG전자는 클로이(CLOi) 모델 실증에 들어가고 관계플랫폼 개발에 협력해 로봇 사업 고객경험을 혁신하고 디지털화를 가속화시킨다는 전략이다.

LG유플러스는 LG전자와 서빙-배송-안내 등 고객 접점에서 서비스로봇 사업에 나선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국내 로봇시장은 자동화 수요가 큰 식음료, 물류 시장을 중심으로 성장



서울 구로구 롤링파스타 매장에서 LG 클로이 서버봇이 가져온 음식을 손님이 꺼내는 모습. /LGU+

하고 있다.

이에 앞서 스마트팩토리, 대기환경 관리, 약제배송 등 산업현장에서 로봇 서비스의 성장 가능성을 확인한 LG유플러스는 유무선 통신서비스를 이용하

는 고객의 디지털화를 지원하고 혁신적인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로봇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LG전자의 로봇 '클로이'를 기반으로 AI(인공지능),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 관제 등 로봇 플랫폼을 개발하는 등 전방위적 사업 협력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양사는 협업의 첫 단계로 서빙로봇 LG 클로이 서버봇을 연내 상품화하고, 이후 로봇 라인업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매장 및 산업현장 전체에 음영지역 없이 LTE/5G 통신 기반 심리스(Seamless) 로봇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러한 사업전략의 일환으로 양사는 8월 말부터 운영자동화/디지털화의 선도 기업인 더본코리아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홍콩반점, 인생설령탕, 롤링파스타 등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서빙로봇 클로이 서버봇을 시범 운영하고 있으며, 추후 프랜차이즈 매장에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산업용

및 서비스용 글로벌 로봇 시장은 2020년 기준 243억 달러(약 33조 8000억원)에 달한다. 이 중 한국의 로봇 시장은 30억 달러(약 4조 2000억원) 규모로 세계 시장의 12.3%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장익환 LG전자 BS사업본부장(부사장은)은 "이번 협업을 통해 보다 많은 고객이 다양한 공간에 최적화된 LG전자의 맞춤형 로봇 솔루션을 경험하기를 기대한다"며, "차별화된 로봇 솔루션을 통해 고객에게 새로운 경험과 가치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택진 LG유플러스 기업부문장(부사장은)은 "이번 LG전자 협업을 통해 로봇 사업에 대한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통신, 데이터 융합 등 통신사만의 기술과 혜택이 돋보이는 로봇 서비스를 개발해 시장에 안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채윤정 기자 echo@metroseoul.co.kr

넓은 실내공간... 강력한 주행성능

어느 것 하나 포기 못하는 아빠들의 드림카

김재웅의 봄봄봄

아이오닉6 타볼

미래 지향적인 외관 디자인
4855mm 중형 세단 급 전장

요즘 아빠들은 욕심이 많다. 넓은 실내 공간은 필수, 안락한 승차감과 함께 강력한 주행성능과 매끈한 디자인, 그리고 유지비 절감을 위한 전동화까지 원한다. 그래서 포르쉐 타이칸이 드림카로 떠올랐지만, 가격이 비싸서 대부분은 꿈으로만 간직한다.

아이오닉6는 아빠를 위한 선물같은 차다. 어느 스포츠카 부럽지 않은 외관

에 강력한 주행 성능, 의외로 광활한 실내 공간에 승차감도 기대 이상이었다. 도심과 고속도로도 등 130km 가량을 달려본 소감이다.

이미 화제를 모은 외관 디자인은 직접 보면 조금 더 미래 지향적이다. 유연한 곡선 형태 속에 직각 형태로 센서 모듈들이 포진해 있다. 옛 티뷰론도 떠오르지만, 뒷대를 보면 포르쉐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도어를 열면 널따란 공간이 맞이해준다. 낮고 평평한 대시보드에 창문 개폐 버튼도 센터페시아로 몰아넣어 첫 인상은 황량하기까지 하다. 덕분에 수납공간을 훨씬 넓게 활용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2열 레그룸이 인상적이다.

전장이 4855mm로 중형 세단 급이지만 휠베이스가 그랜저보다 긴 2955mm나 된다. 체감상으로는 럭셔리 세단 못지 않다.

시트 포지션은 평범한 세단보다는 높은 편이다. 여기에 대시보드도 낮고 평평해서 최대한 낮은 설정에서도 시야를 넓게 확보할 수 있다.

승차감은 대형 세단에 뒤지지 않는다. 이미 EMP-G 플랫폼 안정성은 잘 알려진 사실, 아이오닉5와 기아 EV6 사이에서 균형을 잘 찾았다.

조작 편의성도 그대로다. 현대차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그대로 적용한 가운데, 공조버튼도 최소화했다. 필요할 때 오토만 누르면 작동에 무리가



현대 아이오닉6.

없었다. 운전자 보조 시스템도 버튼 하나로 작동하는 방식. 돌리는 방식이 아니라 당황했지만 스포츠카처럼 스티어링휠 왼쪽 아래에 버튼으로 주행 모드를 변경할 수 있다.

스포츠모드를 켜고 가속페달을 밟으니 강력한 힘이 바로 발휘됐다. 어느 전기차처럼 성능이야 검증된 것, 풍절음이 안들리는 게 신기하다. 디지털 사이드미러나 팝업형 도어 핸들 덕분에 바람 저항이 없다는 느낌을 받았다. 와인딩

구간에서는 과격하게 꺾어봤는데 생각보다 안정적으로 길을 휘돌아나갔다. 서킷에서 꼭 한 번 타보고 싶게 했다.

막히는 길에서는 패들쉬프트 왼쪽을 여러 차례 눌러 '패들' 모드로 바꿨다. 밟으면 가고 떼면 서는 범퍼가 방식 운전할 수 있다. 연비를 크게 높일 수 있는 건 덤이다. 공인 전비는 4.8km/kWh인데, 막 밟아도 이를 상회하고 신경을 좀 쓰면 7km/kWh 수준까지 올라갔다.

/김재웅 기자 juk@

SKT

'SKT 2.0시대' 인재 채용

SK텔레콤이 SKT 2.0 시대를 이끌 인재 채용에 나선다. 오는 30일까지 신입 인재를 모집하고 총 00명 규모로 5개 직군에서 선발할 계획이다.

이번 신입 인재 채용은 도전 정신, 열정 등 성장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평가하고 1박 2일 합숙 면접을 재개하고, 입사 후 교육과정도 대폭 강화해 회사 미래를 이끌어갈 인재로 육성할 예정이다.

SKT는 하반기 신입 인재 채용을 시작하며 22일부터 30일 오후 5시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22일 밝혔다.

SKT는 SKT 2.0 시대에 적합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기존 채용 전형을 새롭게 개편한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지원자들의 직무 경력과 경험보다는 도전 정신, 끈기, 열정과 성장 가능성을 바탕으로 인재를 선발할 계획이다.

/채윤정 기자

중소·벤처·여성기업, 美서 'K-기업 알리기' 팔 걸었다

중기부장관, 중기중앙회장 등 참석

대한민국 중소·벤처·여성기업들이 미국 뉴욕에서 'K-기업'을 알리기 위해 나섰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학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이정환 한국여성경제인협회장, 김분희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이 뉴욕에서 다양한 행사를 열면서다. 한국 중소기업 알리기에는 가수 보아를 비롯해 WINNER, CIX가 동참했다.

22일 이들 기관에 따르면 20~21일 이틀간(현지시간)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Pier 17에서 K-POP 한류공연과 중소기업 제품 특별 판매전을 연계한 'K M INICON 및 판촉전 in NYC'이 열렸다.

행사 이튿날 저녁에 약 2시간 동안 진행한 K-POP 스타들의 공연에는 뉴욕



21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Pier17에서 열린 'K-뷰티 수출상담회'에서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왼쪽 2번째), 이영 중기부 장관(왼쪽 4번째)이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진공

시민 약 2000명이 참여해 뜨거운 환호를 보냈다.

특별판매전에는 'K-뷰티' 등 소비재 분야 중소기업 30개사가 참가해 행사장을 찾은 뉴욕시민들에게 한국을 대표하는 우수 제품들을 선보였다.

중기중앙회가 'K-뷰티 수출상담회'와 함께 'Love K-뷰티'라는 이름으로 연 'K-뷰티 메이크업쇼'에선 한국의 1세대 메이크업 아티스트인 조성아 원장

의 '텐미닛 메이크업' 강좌도 진행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현장에서 참여기업들의 제품을 직접 소개하며 'K-뷰티 홍보대사'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앞으로도 미국 뿐만 아니라 우리 수출 중소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해 중기부가 아낌없이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

포스코케미칼

'통섭형 엔지니어' 모집

포스코케미칼이 글로벌 배터리소재 시장에서 활약할 '통섭(統攝)형 엔지니어' 채용에 나선다.

포스코케미칼은 인문·사회 전공자를 엔지니어로 선발하는 '글로벌 통섭 인재(대졸 신입사원) 채용' 전형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통섭형 인재란 인문·사회·자연과학·공학의 지식을 융합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인재를 말한다. 포스코케미칼은 배터리 소재 분야 해외 사업을 확대하면서 진출 국가에 대한 문화와 지정학적 이해에 장점이 있는 인력 확보에 나선다.

직무능력이 검증된 직원에게는 해외 파견 기회를 우선 부여할 방침이다.

/양성운 기자 ysw@

YouTube

유튜브(메트로신문) 동영상 제공

